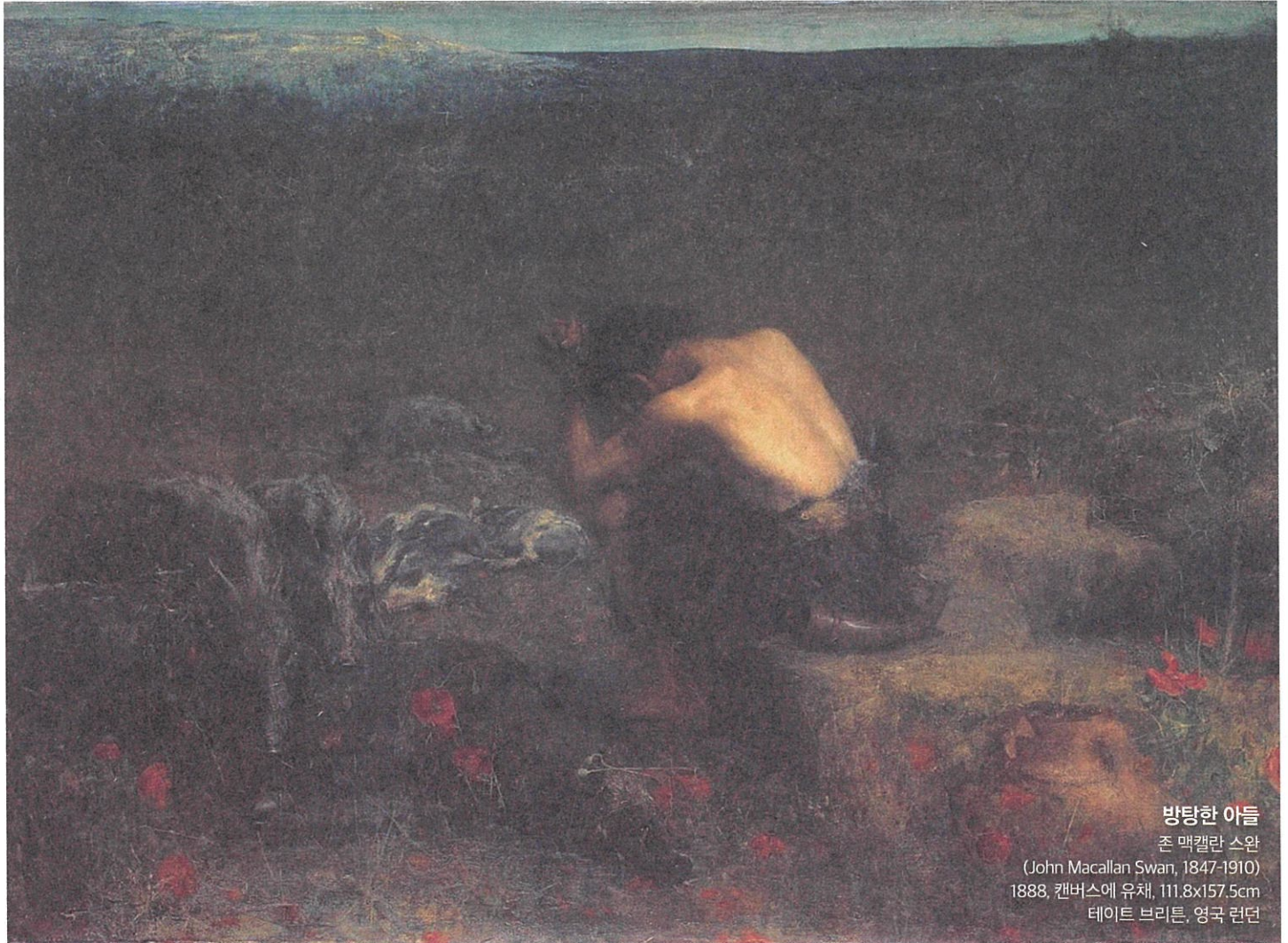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551호
2025년 3월 30일(다해)

사순 제4주일



방탕한 아들

존 맥캘란 스완

(John Macallan Swan, 1847-1910)

1888, 캔버스에 유채, 111.8x157.5cm

테이트 브리튼, 영국 런던

입당송 | 이사 66,10-11 참조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제1독서 | 여호 5,9ㄱ-10-12

화답송 | 시편 34(33),2-3.4-5.6-7(◎ 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
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
에서 구원해 주셨네. ◎

제2독서 | 2코린 5,17-21

복음환호송 | 루카 15,18 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복음 | 루카 15,1-3.11ㄴ-32

영성체송 | 루카 15,32 참조

아들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
니 기뻐하여라.



김현웅 바오로 신부 |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죄를 고백함’은 ‘하느님을 찬미함’입니다

“지난날 저의 모든 죄악과 타락을 기억해 내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좋아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고백록》 2,1)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입니다. 이는 ‘사랑받는 사람의 자신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작은아들은 ‘돌아오는 아들, 회심하는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작은아들’입니다. 회심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사랑과 용서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큰아들이 이를 가로막습니다. 사실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큰아들은 크게 잘못된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했던 회심과 고백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들어오는 동생이 못마땅했고, 그런 동생을 따듯이 맞아 주시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큰아들은 ‘떠나는 아들, 회심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작은아들보다, 아버지와 동생

에게 화를 내는 큰아들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동생을, 비록 다시 받아줄 수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먼저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작은아들’보다 ‘화를 내는 큰아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도 용서한 동생을 아버지보다 더 모질고 냉정하게 심판하는 큰아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했다는 것은 결혼식 그 순간만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부는 일생을 통해 사랑을 더욱 키워 나가야 합니다. 부부가 되었지만, 더욱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더욱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났었다면,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돌아가면 됩니다. 큰아들처럼 교만했다면, 하느님의 품에서 용서를 청하면 됩니다. 죄를 고백함은 곧 하느님을 찬미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과거를 당신의 자비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현재를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당신의 섭리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방랑한 아들과 되찾은 아들

성화 해설

보통 ‘돌아온 탕자’, ‘방랑한 아들’로 기억되는 예수님의 비유는 작은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존 맥켈란 스완은 돼지를 치던 아들을 그립니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은 채 어두운 들판을 향한 아들의 등에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아들 뒤에는 붉은 꽃이 피어있고 물독도 있지만,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간절한 손만 하늘을 향한 뿐입니다. 성경은 이 비유의 제목을 ‘되찾은 아들’이라고 적습니다. 아버지가 주어이고 주인공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뒤돌아보길, 우리를 되찾길 기다리십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무명 순교자를 위한 진혼곡



정미연 아기예수의테라사 | 성화작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날! 그 향기가 순교자들을 향해 퍼져갑니다. 열두 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가 끝날 무렵, 전주의 첫 순교자 권상연을 기념하는 성당의 모든 성물과 성화를 맡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저를 살린 둘째 아이가 엄마의 건강을 염려하며 작업을 의뢰하신 신부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저 역시 후유증으로 여전히 힘든 상태에서 방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지만 작가로서 소중한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 순교자상, 성모상, 십자가, 14처, 감실, 문손잡이에 이르기까지 무엇에 홀린 듯 작업하다 보니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평소에 그려 놓은 목주기도 그림, 예수님의 일대기 테라코타 작업, 성전 입구의 천지창조 그림들도 마치 예비한 듯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돌이켜보니, 일련의 작업은 아픔을 통해 순교자들의 뼈아픈 고통 속으로 저를 초대해 주신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무수한 작품 가운데 가장 가슴에 파고들었던 것은 4미터에 가까운 대형 십자가상입니다. 나의 죄가 파먹은 예수님의 몸, 탈골된 뼈, 꺾인 목, 골수까지 박힌 가시관! 지금까지 수없이 만든 십자가상과는 달리 절체절명의 고통 속에서 만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땀과 기도와 희생이 산을 이루어 권상연성당이 탄생하였습니다.

겨우 숨을 돌리고 지내던 어느 날 절두산 순교성지의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서 전시회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절두산 성지에서 8천 명이나 되는 무명 순교자들의 목이 잘려 한강에 던져졌다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파가울 정도로 저렸습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적신 순교자들의 핏방울이 제 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짙은 아픔의 터널을 지나온 저에게 던져진 주제를 안고 화실 앞 커다란 비움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그분들께 마음을 다해 위로의 그림을 바칠 수 있을까 묵상했습니다. 쟁반에 놓인, 잘려 나간 순교자의 머리가 하느님을 향해 미소 지으며 평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 하느님의 커다란 눈물방울 속에 잠긴 무명 순교자들, 죽는 순간까지 함께 잡힌 가족에게 배교하지 말라며 당부하던 순교 복자 이의송, 그 밖의 우리 아름다운 강산을 피로물들인 순교자들의 절절한 행보를 곳곳에 담아 봅니다.

그분들이 모진 박해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였을까요?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첫 순교자에서 절두산의 무명 순교자들까지 그리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소명으로 여기며 기쁘게 받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이 귀한 믿음은 수없이 많은 순교자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기쁘게 살아야 할 과제가 제게 주어진 것 같아 가슴 벅찰 따름입니다.



친해지는 일



임여주 아네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송순 작가의 동화 《반반 고로케》의 주인공 민우는 엄마의 재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정하게 한글을 가르쳐주던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지 3년째. 아직 아빠의 빈자리가 큰 민우에게, 엄마와 결혼한 이사드 아저씨는 낯설기만 합니다. 아빠와 닮은 데가 많아서 마음이 끌렸다는 엄마의 말이 민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저씨는 엄마보다 더 먼 나라에서 와서 엄마보다 우리말이 서툴고, 아빠에겐 없던 콧수염도 있고, 무엇보다 아저씨는 민우에게 고로케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드 아저씨는 무슬림이어서 햄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데, 민우도 그럴길 바랐던 것이죠. 아빠와 추억이 서려 있어 민우에게는 소울푸드와도 같은 고로케를 먹지 말라니, 민우는 아저씨가 한층 더 미워집니다. 엄마는 아직 서로를 잘 몰라서 그런 거라며 위로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민우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민우에게 이사드 아저씨는 조금씩 천천히 다가갑니다. 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 민우가 걱정되어 찾아다니고, 민우가 좋아하는 망고주스를 내밀고, 달리기 좋아하는 민우에게 제대로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처음에 아저씨를 밀어내기만 하던 민우도 아저씨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민우가 학교 축제에 달리기 선수로 출전한다는 얘기를 들은 아저씨가 “민우! 대단해! 아빠 닮았구나.”(136쪽)라고 말했을 때는 심지어 웃음

이 날 뻗도 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치켜세우고 “민우! 화이팅!”(137쪽)이라 외치는 아저씨에게, 드디어 민우도 활짝 웃어줍니다. 그동안 아저씨는 민우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고로케를 좋아하는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 노력이 민우에게도 무사히 전달되었던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일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잘 맞아 신기해하며 빠르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매우 드문 일이죠. 대부분은 처음에 서로를 잘 몰라서 실수도 하고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의 감정을 앞세워 상대를 비난하기만 하면 관계는 거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용기 있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오해가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진심을 나눌 수 있다면,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전보다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이 기꺼이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드 아저씨의 노력을 민우가 받아주었던 것처럼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렇게 지난한 여정을 거쳐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요. 기쁜 시간도 힘든 시간도 함께 거쳐 온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인사 한마디 건네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바라보기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대신학교장

얼마 전에 아는 분을 만나 기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5단씩 바치시는데, 첫 단은 늘 손녀딸을 위한 지향으로 바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손녀딸이 제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매일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손녀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요. 손녀 덕분에 매일 기도하게 되었으니, 제가 감사할 일이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정말 맞는 말씀이다!’

같은 일을 두고도 다르게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복음서의 예수님에게서 자주 보게 됩니다. 율법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안식일 논쟁(마르 2,23-28 참조)이나 간음한 여인을 대하시는 모습(요한 8,1-11 참조)에서,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마르 12,13-17 참조)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식과 다르게 예수님께서서는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으시고(“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남이 아닌 나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시며(“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가 주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하느님을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삶이 녹록지만

은 않습니다. 주위의 여러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주위 환경은 그대로이더라도 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인 양 포장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영성화’(spiritualization)에 빠질 일은 아닙니다. 영성화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어 기제로 쓰일 뿐,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정 관념과 선입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식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삶의 본질을 좀 더 통찰하고 내가 베푸는 것보다 사실은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에 감사가 우러납니다. 감사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로 차오르는 고마움과 감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삶이라는 현실에 속해 있지만, 다르게 바라봄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바로, 우리가 얻는 ‘구원’의 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 뮌헨

여러 사람을 통해 활동하시는 하느님



신정훈 미카엘 신부
해외선교(뮌헨-프라이징대교구 막시밀리안 본당 부주임)

독일 뮌헨,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간호사이신 본당 신자분을 통해 중환자실에 계시는 어느 한국인이 병자성사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곳 대학 병원에 가서, 줄담배를 태우고 계시던 남편분을 뵈었습니다. 여행을 함께 왔던 아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당황하셨던 그레고리오 형제님은, 가망이 있다면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가서 치료받게 할 것이고, 아니면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을 오게 하여 함께 임종을 지켜볼 것이니, 가타부타 빨리 알려 달라고 병원 측에 재촉하셨습니다.

만나 뵈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은 가망이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자녀분들을 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고는, 병원비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이십여 년 전 앓은 폐암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으시고 비용 문제는 병원 측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해결해 볼 터이니, 가족은 환자에게만 집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병원에 도착하니 태권도 사범으로 영사관 업무를 도외주시는 다른 형제님이, 자녀분들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공항 입국 수속 문제와 교통편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이어 만난 두 번째 의사 선생님께, 자녀들이 빨리야 10시쯤 도착할 텐데 과연 임종을 지킬 수 있을까 여쭙자, 걱정 말라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루시아 자매님이 병자성사를 받은 후, 그레고리오 형제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나를 만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나는 자격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당신에게 큰 사랑을 받았구려. 당신 덕분에 나는 세상에

서 누구보다 행복했어. 특히 당신이 아프고 난 뒤 지난 이십여 년은 하느님께서 덤으로 주신 선물이었지. 이제 하느님 곁으로 가서 더 이상 아픔 없는 삶을 누리구려. 그것이 못난 내가 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을 거야. 여보, 힘들면 아이들 굳이 기다리지 말고, 어여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도 좋아.”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제님의 모습은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분의 말씀은 병자성사 예식서 기도문의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의사 선생님 두 분이 환자를 두고 말다툼하셔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환자분을 더 견디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 관한 의견 차이일 뿐이니 염려 말라 우리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전날 밤 비행기를 탄 자녀분들은 오전에 도착해서 루시아 자매님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지냈고 자매님은 오후 2시 넘어 선종하셨습니다.

두 부부가 사랑과 감사와 평온함을 나눴던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놀라우신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은 적재적소에 배치된 당신의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십니다. 연락을 주신 간호사도, 가족의 걱정을 실제로 덜어주고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보셨던 두 의사 선생님도, 행정상의 온갖 뒤처리를 도맡으신 프란치스코 형제님도 모두 신앙인이셨고 우연히 전화를 받은 저 역시 그러합니다. 하느님은 여러 천사를 통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처럼, 비록 타향살이는 고달프더라도 타성에 물들지 않고 당신께 마음을 돌릴 귀한 기회를 주십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2025년을 가톨릭교회는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희년’(禧年)이란 무엇인가요? 창세기를 보면 세상 창조 때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여기에 착안해 6년 동안 밭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냈는데, 이때는 밭의 소출을 자기 소유로 주장하지 않고, 여기서 얻은 곡식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때는 빚도 탕감해 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이때는 땅을 일구지도 않고, 땅이나 물건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해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것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교황님은 희년을 선포하시며 특히 ‘희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희망을 무엇보다 사랑과 믿음에 연결시켜 말합니다. 실제로 희망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예수님의 성심에서 샘솟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구원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2-5) 그리스도인은 사랑에서 비롯된 희망이 믿음을 통해 굳건해질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어렵고 힘든 우리에게 교회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로마 15,5)이신 분께 믿음을 두고 인내하며 희망해야 합니다. 인내는 희망의 출발점이자 과정이며 토대입니다.

희년을 위해 거룩한 장소라 지정된 곳을 방문하고, 순례하며 정해진 참회 행위를 바치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황청 내사원은 대사 받는 12가지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에 근거해 우리 교구도 전대사 받는 방법을 굿뉴스에 공지했습니다. ‘대사’(大赦, indulgentia)란 고해성사 이후 죄를 용서받았으나 아직 미처 다 해소하지 못한 나머지 벌인 ‘잠벌’을 사해 주는 것, 그리고 보속을 완수하지 못한 채 죽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 있는 신자들이 ‘대속’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대사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죽은 이를 위해서도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줄 수 있지만, 살아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얻어줄 수는 없습니다. 대사는 희년의 선물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희년의 목적은 창조주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기쁨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년은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 진리, 생명”(요한 14,6 참조)이신 예수님과 참되고 인격적 만남을 갖는 시간이 희년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4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홈페이지(culture.catholic.or.kr) 접수

문화학교 카카오톡채널을 구독하시면 강의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성강좌

청년 Hello 기도 : 도심 속 청년 피정
매월 첫 번째(화) 19시 30분 ~ 21시 / 무료
대상 : 35세 이하 남녀 젊은이

기도! 초보자를 위한 기도 훈련
: 김정희 수녀님과 함께 기도 배우기
4월 22일 ~ 6월 17일 매주(화) 19시 30분
~ 21시(8회) / 수강료 : 8만원(책값 별도)

영화가 가리키는 하느님 나라
: 구본석 신부님과 신앙의 관
점에서 영화 감상
5월 13일 ~ 6월 10일 매주
(화) 19시 30분 ~ 21시(5회)
수강료 : 6만원

쓰담쓰담, 그림책으로 내 마음 돌보기
: 심리상담가와 함께 소통하는 법 배우기
5월 9일 ~ 6월 13일 매주
(금) 13시 30분 ~ 15시(5회)
수강료 : 6만원(책값 별도)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고통은 왜?
: 김영선 수녀님의 고통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해석
5월 15일 ~ 6월 19일 매주(목) 19시 30분
~ 21시(6회) / 수강료 : 8만원

5월 15일	강의 소개 및 각자가 고통을 다루어 온 방법에 대한 성찰
5월 22일	고통에 대한 탄원: 탄원 시편 중심으로
5월 29일	보상법적 접근: 지혜 문학
6월 5일	신비로서의 고통: 율기를 중심으로
6월 12일	대속적인 고통: 이사 53장과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고통
6월 19일	연기된 정의 - 묵시론적 접근

미술사

호모루덴스, 초월의 의미를 그리다
: 이재걸 교수님의 서양미술사 다시 읽기
4월 25일 ~ 5월 23일 매주(금) 19시 30분
~ 21시(5회) / 수강료 : 7만원

4월 25일	진리 추구와 놀이 충동
5월 2일	원시 신앙과 최초의 미술
5월 9일	아름다움에 대한 위대한 각성
5월 16일	신의 영광, 인간의 창의성
5월 23일	미(美)와 숭고

문화 강좌

신앙의 빛을 담다 - 글라스아트
5월 13일 ~ 6월 10일
매주(화) 19시 ~ 21시(5회)
수강료 : 6만원(재료비 별도)

왕초보를 위한 가톨릭 태블릿 드로잉
5월 28일 ~ 6월 25일 매주(수) 15시 ~ 17시
(5회) / 수강료 : 7만원(태블릿 개별 지참)

가톨릭 희년 아이패드 드로잉
5월 28일 ~ 6월 25일 매주(수) 19시 ~ 21시
(5회) / 수강료 : 7만원(아이패드 개별 지참)

캘리그래피 성경 쓰기
5월 28일 ~ 6월 25일 매주(수) 19시 ~ 21시
(5회) / 수강료 : 6만원(재료비 별도)

마크라메 목주 및 악세사리 만들기

5월 29일 ~ 6월 26일 매
주(목) 낮반 14시 ~ 17시,
저녁반 19시 ~ 21시(5회)
수강료 : 6만원
(재료비 별도)

프랑스 자수로 가톨릭 소품 만들기



5월 28일 ~ 6월 25일 매
주(수) 19시 ~ 21시(5회)
수강료 : 6만원
(재료비 별도)

세례명 수제도장 만들기

5월 29일 ~ 6월 26일 매주(목) 19시 ~ 21시
(5회) / 수강료 : 6만원(재료비 별도)

원데이 문화 강좌

만화로 성경 속 식물 그리기
4월 25일(금) 14시 ~ 17시
수강료 : 2만원
(재료비 별도)



말씀 정원 액자 만들기
4월 25일(금) 14시 ~ 16시
수강료 : 2만원
(재료비 별도)



레진으로 세례명 넣은 소품 만들기

4월 30일(수) 낮반 14시 ~
17시, 저녁반 19시 ~ 21시
수강료 : 2만원
(재료비 별도)



우드버닝 미니트레이
4월 30일(수) 낮반 14시 ~ 17시,
저녁반 19시 ~ 21시
수강료 : 2만원
(재료비 별도)



오병이어 손뜨개 수세미
5월 20일 ~ 5월 27일 매
주(화) 14시 ~ 17시(2회)
수강료 : 3만원(재료비 별도)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2025년 2월 18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으로서 임민균 그레고리오 신부(서울대교구, 2006년 사제 수품)를 임명.(3년 임기)
- 2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총무로 임민균 그레고리오 신부(서울대교구, 2006년 사제 수품)를 임명.(3년 임기)
- 3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총무로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인천교구, 1997년 사제 수품)를 임명.(3년 임기)
- 4 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로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서울대교구, 2007년 사제 수품)를 임명.(3년 임기)
- 5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총무로 강성숙 레지나 수녀(성 빈센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를 재임명.(3년 임기)
- 6 주교회의 2025년 춘계 정기총회 주교 연수 주제로 '신냉전 국제정세

상황 이해와 교회의 선교 전망'을 선정.

- 7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이행을 위한 '전국 모임'과 '연구 세미나', '시노드 교회를 위한 본당 사제 모임' 개최 계획, '한국 천주교회 주일 학교 교리 교사 양성 지침'(안) 심의, '방송 미사에 관한 지침'(안) 심의,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 복음화위원회 주최 제2회 아시아 선교 대회 참석 대표단 구성, 제54차 세계성체대회 한국 대표 선출, 주교회의 전국기구의 2025년 예산 심의 등 주교회의 2025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 목록을 확정함.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2년 4월 3일 양기섭 베드로 신부(77세)
- 2022년 4월 1일 유봉준 토마스 신부(92세)

서울주보 알림 게재 신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 알림

서울대교구 성소후원회 50주년 기념 미사

때, 곳: 4월 4일(금) 오후 2시, 명동대성당
집전: 정순택 대주교 / 문의: 02)727-2123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형주 외 12명 <빛을 찾아서>: 전관
전시일정: 3월 28일(금)~4월 6일(주일)

순교자현양 신심 미사(346회)

때, 곳: 4월 1일(화) 오전 10시, 절단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4월 3일(목) 오후 2시~3시, 문화관 2층 소성당(포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윤운상 신부(대만 파견)

가톨릭교육자의 날

내용: 서울 가톨릭초·중·고등교육자들이 다 함께 모여 미사·특강을 통해 위로받고 신앙을 다지는 시간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때: 4월 26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곳: 성심여자중·고등학교(용산) / 회비: 3만원
미사: 이경상 주교, 담당사제 공동 집전
신청: 온라인 신청서(<https://www.kycc.or.kr>) 팝업창 참조
문의: 02)566-5456, 02)553-7320 학교사목부(CCE)

주교좌 명동대성당 2025 상반기 견진성사

대상: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세례 받은지 3개월 이상된 신자)
신청기간: 구비서류 지참 후 사무실 내방 접수(3월 30일 10시~17시, 성당미당 부스 현장접수 / 자세한 일정과 제출서류는 명동대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고)
교육일정: 4월 27일~6월 1일 13시30분~15시30분(5주간 / 5월 4일 휴강)
교리장소: 포스트홀 / 조별나눔-교육관
견진성사: 6월 8일(주일) 오후 2시, 대성전
문의: 02)774-1784 성당 사무실

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6월 30일~7월 11일(11박12일) / 지도: 전영준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 데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슬픔 속 희망찾기' 4월 유가족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곳: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때: 4월12일(토) / 성삼일 관계로 월례미사 변동) 10시(자비의 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교육기간: 4월 9일부터 매주(수) 오전 10시(10주 과정)
곳: 천주교 노동사목회관 6층 경찰사목위원회(보문동)
접수: 4월 2일(수)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신청): 02)742-9471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https://catholicpolice.or.kr/html/dh/cam03>) 참조

환경사목위원회

1) 4월 청년환경 모임

고통 받는 공동의 집 지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위해 실천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초대합니다 / 대상: 환경 파괴의 상황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청년(만 35세 이하)
때, 곳: 4월 5일(토) 16시, 가톨릭회관 612호(명동)
문의(신청):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2) 제73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4월 10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4월 6일(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4월 7일(월) 13시30분~16시30분

2025 역사서 4월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4월 3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 내용: 역대기 역사서와 후기 역사서 특강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4월 14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최세영 요셉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사목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가톨릭상담봉사자 교육

때: 매주(화) 오후 2시~4시(1, 2학기 / 총 16주)
회비: 학기당 8만원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교육명: 뮤지컬(이슬), 심리강좌(윤제원), 이태리어 배우기(류재만), 집단상담(최현정), 해금(정겨운)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3)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교구청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4) 김기화 신부의 영성강좌

주제: 성모 마리아는 누구이신가
때: 4월 3일, 4월 24일, 5월 1일, 5월 15일 19시~21시
곳: 영성센터 B204호(명동) / 문의: 010-4100-8807

인준단체 알림

모임

4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4월 24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어능성지 월례 음악 피정 / 문의: 031)636-4061

때: 4월 26일 / 지도: 박상호 신부
 홈페이지(http://onong.or.kr/xe) 공지사항 참조

3기주 매월 셋째(주)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박희전 신부(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
 때, 곳: 4월 16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4월 1일 이재을 신부 4월 8일 김도영 신부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때: 10시~14시(미사) / 문의: 031)952-6324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피정 4월 5일(토)
 매주 목요일 기도·피정 강사: 이한택 주교

산청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피정

유튜브 '작은형제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접수): 055)973-3788 조수만 신부
 침묵관상 피정 4월 13일~17일, 5월 11일~15일, 6월 15일~19일
 수도원스테이 4월 25일~27일, 5월 23일~25일, 6월 13일~15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31)321-9060, 010-4154-0885
 2월3일 5월 23일(금)~25일(주일), 6월 13일(금)~15일(주일)
 8월9일 8월 6일(수)~14일(목) 40일 6월 21일(토)~7월 30일(수)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지리산 피아골 6월 20일~21일, 9월 19일~21일
 전주·광주 4월 9일~11일 대구교구 5월 22일~23일
 흥성남 신부와 고도·나가사키 6월 16일~20일
 이탈리아 성지순례 5월 14일~25일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회성) / 010-3340-0201
 성경 완독 4월 4일(금)~12일(토), 5월 9일(금)~17일(토)
 하느님, 바를, 나(힐링 피정) 5월 23일(금)~25일(주일)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6월 6일(금)~8일(주일)
 구약여행 에레미야서

성모솔숲마을 치유 피정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기도 피정-첫째주(토)~(주일) 4월 5일~6일
 기도 테라피 5월 3일~4일
 관계치유 피정-둘째주(금)~(주일) 5월 9일~11일
 공감 테라피 6월 13일~15일
 단식치유 피정(호소)-내 몸 테라피 셋째주(목)~(주일)
 말씀치유 피정-넷째주(토)~(주일) 4월 26일~27일·5월 24일~25일 / 다음달 복음 묵상
 렉시오 디비나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파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4월 5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2025년 DMZ 평화의 길

대상: 초3 이상 누구나(차수별 40명 선착순) / 회비: 15만원
 때, 곳: 2박 4월 25일(금)~27일(주일)·5월 16일(금)~18일(주일) / 문의: 031)941-2766(www.pu2046.kr)
 주최: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탐방·성지순례

때, 곳: 5월 24일~26일(대구 17곳)·6월 14일~17일(부산 11곳·마산 6곳)·6월 21일~23일(춘천 15곳·성내동)-가톨릭회관 후문 출발, 8월 28일~9월 3일(백두산-브뤼기에르 주교 고난의 길)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교육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4월 7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여의도성모병원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때, 곳: 4월 24일(목)~25일(금) 8시30분~18시, 여의도성모병원 본관 4층 강당 / 문의: 02)3779-1804, 2558
 4월 14일(월)까지 선착순 00명 접수
 회비: 5만원·현장접수 6만원
 계좌: 우리 832-04-100745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 등록 후 취소 불가, 주차 불가
 카카오톡: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초보자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4월 14일(월)~25일(금) / 전형일: 5월 16일(금)
 곳: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CCM 작곡 포함)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신앙과 인문학, 새로운 만남

때: 4월 8일~29일 매주(화) 19시30분(4주) / 청년 할인
 현장강의 또는 녹화강의 선택 / 문의: 02)2135-9398 한국CLC(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1강(4월 8일) 신 앞에 선 인간 박승찬 교수(가톨릭대)
 2강(4월 15일) 탈종교시대, 종교를 말하다 생해영 교수(서울대)
 3강(4월 22일) 다산 정약옹이 꿈꾸었던 세상 정민 교수(한양대)
 4강(4월 29일) 하느님의 경제학 김민직 교수(한국기술교육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5년 봄 특강

때, 곳: 5월 14일~6월 11일 매주(수) 5회-13시30분~15시30분(강의)·12시10분(미사), 교육회관 1층 성당
 회비: 5만원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5월 14일 5월 음악회 '그리움을 맞고 깨달아라' 박종훈 수사
 5월 21일 희망의 순례자, 성모 마리아 이동욱 신부
 5월 28일 치유의 미술관 이지안(도슨트 미술치료사)
 6월 4일 스페인 바로크 미술의 세계 양정무 교수
 6월 11일 영화 '문신을 한 신부님' 구본석 신부

미사반주자예비반주자 오르간교육 / 문의: 010-3203-8183

곳: 9강동지구오르간교육연구소(천호동성당)-주최

말씀의 집 성서백주간 모집(성서백주간)

성경 전체를 통독, 묵상, 나눔, 실천하는 모임으로
 서 본당 내에서 백주간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
 한 새로운 반을 개설합니다 / 문의: 010-3557-4410
 곳: 말씀의 집(신월동) / 4월 4일까지 선착순 접수

가정선교회 영성학교

강사: 김연범 신부, 송봉모 신부, 김재덕 신부, 양승국 신부, 이창진 신부, 김현우 신부, 박현민 신부, 김성대 신부
 때: 4월~10월 (화) 12시30분~17시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회비: 교육당 3만원

모집

아퀴나스합창단 단원 모집

아퀴나스합창단이 함께 활동할 알토와 베이스 단원을
 찾습니다(소프라노, 테너도 가능/55세 이하, 전공 무관)
 오디션: 자유곡 1곡 / 문의(문자): 010-8000-3194 총무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4월 4일(금)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929-2977

곤베두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4월 5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안내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수녀회)

해외가톨릭사립학교 입학설명회

학교설명회: 4월 26일(토) 15시(예약 필수),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정규입학: 초4~고2 / 미국, 아일랜드(6개월 이상)

강남구 성요셉유치원 50주년 안내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1회~49회(1975~2023)
 졸업생들의 유치원 생활 모습이 담긴 추억 사진
 을 모집합니다 졸업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는 곳: stjosep2017@naver.com
 문의: 02)543-8819, 010-5333-8819

유관단체 알림

WYD(세계청년대회), 기대효과와 복음화 모색

제6회 가정과 청소년을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심포지엄 / 문의: 02)744-0840
 주최: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햇살사목센터
 때, 곳: 4월 12일(토) 14시~17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한국의방선교회	수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2025년 3월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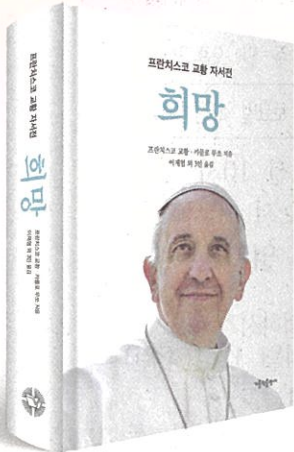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님 공식 자서전 《희망》 출간

Spera, spera e dopo spera ancora

“희망하고, 또 희망하고,
다시 한번 희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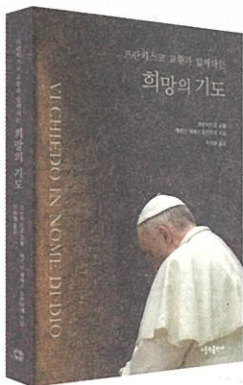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님

2025년 하반기 필독서
사상 최초로 재위 중 출간된 자서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음
3만4천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직접 6년간 집필한 자서전 《희망》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고민, 성직자로서의 소명, 교황 재임기의 중요한 순간에 대한 증언, 그리고 마지막 영적 유언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만나 보세요.



추천도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희망의 기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음 | 1만8천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10가지 기도

지구에 사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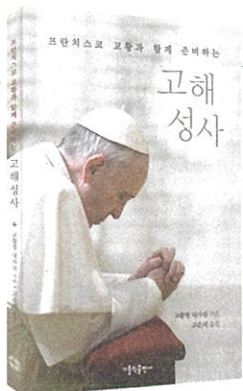
신간

성모님께 바치는 찬가들

코스탄테 베르셀리 외 역음 | 2만4천원

천년의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온
성모님을 향한 인간의 찬미!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에서 불려온
성모님을 찬미하는 기쁨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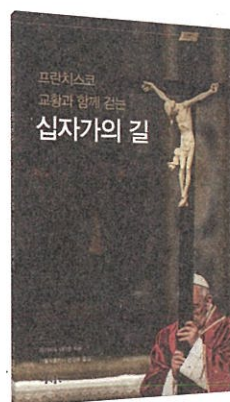
사순 시기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준비하는 고해성사

교황청 내사원 지음 | 1만원

참된 고해성사는 그분께 용서를
청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느님과 진정한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은총의 시간



사순 시기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데이비드 나이트 지음 | 3천5백원

고통을 넘어서 희망과 용기가
샘솟는 새로운 십자가의 길 묵상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묵상으로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묵상하다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의 모든 도서와 성물, 디지털 콘텐츠를
'가톨릭북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www.catholicbookplus.kr

구입문의
02) 6365-1888





제2시대문·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스테파노)

연락처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청진하십시오”

◎ 사순 특강

일시 : 4월 2일(수) 오후 8시 / 대성전

강사 :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님

주제 : 사순의 성서적 의미

◎ 전신자 부활맞이 대청소

일시 : 4월 13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개인 준비물 : 걸레, 고무장갑

청소 구역	구역
대성전 1층·2층	4, 자부회
제의방쪽 창문, 사무실 뒤 계단	양업회
지하소성전 및 통로	1, 청년
지하식당, 이레밴드실	6, 10
지하주차장	이레밴드
교육관 1층	8, 연성회
교육관 2층	11
교육관 3층	3, 7
영안실, 육각계단	2
주차장 및 화단 주변	5
화장실 천장, 교육관 계단, 엘리베이터 내부	9, 대건회

◎ 성삼일·주님부활대축일 전례 안내

4월 17일(목) 주님만찬성목요일	오후 8시 - 주님만찬저녁미사 (미사 후 성체조배) ※ 성체조배 시간표는 게시판을 확인바랍니다.
4월 18일(금) 주님수난성금요일	오후 3시 - 십자가의 길(단식, 금육) 오후 8시 - 주님수난예식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4월 19일(토) 파스카성야	오후 8시 - 파스카성야미사 (준비물 : 부활절예물) ※ 오후 3시 어린이미사 없음
4월 20일(주일) 주님부활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주일학교) 오전 11시, 오후 6시 ※ 오전 7시 미사 없음

※ 성삼일(4월 17일 ~ 19일)동안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십자가의 길

일시 : 4월 4일(금), 11일(금) 오전 10시미사 후
4월 18일(금) 오후 3시

◎ 부활 집중 판공성사

일시 : 4월 1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동안의 모든 고해성사는
부활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연례회 미사 : 4월 1일(화) 오전 10시

◎ 성모신심미사 : 4월 5일(토) 오전 10시

◎ 2025년 2분기 전신자 성서책 읽기

1.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

※ 도서를 구입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3월 30일(주일) ~ 4월 13일(주일)

◎ 회년 맞이 연희동성당 바자회

회년을 맞이하여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은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의 삶에 따뜻한 손길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시 : 5월 18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 성당 마당 및 교육관

바자회 물품 대상 : 먹거리, 깨끗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등

물품 기증 : 4월 매 주일(4월 6일, 13일, 20일, 27일)

후원 단체 : ① 이주여성그룹홈 ② 한사랑공동체

③ 바오로교실(장애인 보호작업장·주간보호시설)

◎ 연성회(70대) 모임

일시 : 4월 10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문의 : 요셉 총무 (010-3891-4300)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3. 23)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12	574 (28.5%)	522 (25.9%)	42.9%	41.6%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37-04-110875

◎ 감사헌금 (3월 17일~23일)

故 이서근 베드로 상가 삼십만원

◎ 감사헌금 (3월 17일~23일)

곽선모 오천원 박명숙 오만원

유민우 오만원 이정금 일만원

오윤미 오만원 한병기 일십만원

박명순 이십만원 박영희 삼십만원

김재관 오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사순 제3주일)

교 무 금 6,450,000원

주일헌금 5,952,000원

입당 118 봉헌 217,215,213 성체 188,171,180 파견 124



주님이여 마나 좋은 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